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이민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 해외 동향으로 본 인재 유치·정주·사회통합의 변화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민정책을 단기 인력 충원 수단을 넘어
중장기 인구 전략의 한 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왜 지금 이민정책을 '인구 전략'으로 봐야 할까?

-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민정책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과 노동가능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력 부족이 장기적인 인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2000년 1.7명
↓
2024년 1.4명



OECD 노동가능인구 전망

2023~2060년
평균 8% 감소

감소 폭이 큰 국가

14개국은
30% 이상
감소 전망

노동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이민정책은 일시적인 인력 보충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 인력 충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으로

세계의 인구 이동은 얼마나 커졌을까?

- 국제이주는 일부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흐름이 됐습니다.

국제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의 목적과 체류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국제이주민 규모



3억 402만 명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장기거주형 이주



영주권이나 갱신 가능한
체류허가를 통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주

단기체류형 이주



취업·유학·계절근로 등
정해진 기간과 목적에 따른 이주

국제이주의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이민정책도 유입 목적과 체류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전문·고숙련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을까?

- 전문·고숙련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자뿐 아니라 정착 여건까지 유치 전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OECD는 전문·고숙련 인재가 이주할 국가를 선택하는 환경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OECD가 비교한 인재 매력도 7개 영역



기회의 질 | 소득과 조세 | 미래 전망 | 가족 생활 여건 | 기술 인프라 | 포용성 | 삶의 질

한국의 고학력 근로자 매력도(2023)

종합 순위 OECD 38개국 중 25위

기술 인프라	1위	강점
소득과 조세	7위	
미래 전망	20위	보통
포용성	23위	
삶의 질	24위	
가족 생활 여건	33위	과제
기회의 질	36위	

인재 확보 경쟁은 좋은 일자리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정착 환경을 만드는 경쟁입니다.

유학생과 창업 이민자는 왜 새로운 인재로 주목받을까?

- 학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인재를 취업·창업과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유학생을 졸업 후 지역에 기여할 잠재 인력으로 육성하고, 창업 이민자에게는 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체류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적정 규모 관리, 졸업 후 취업·체류 전환, 지역 정착 연계
해외 사례	호주: 비수도권 졸업·거주자에게 추가 체류 기회 제공 캐나다: 유학생 규모와 교육·주거 등 수용 여건을 함께 관리

창업 이민자

주요 정책 방향	스타트업 비자, 창업 지원, 거주·영주 경로 제공
해외 사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를 통한 영주 경로 제공 프랑스: 신속한 거주허가·행정절차 안내·재정 및 코칭 지원

정책의 공통 흐름

단순한 유치 확대를 넘어,



유학생과 창업 이민자를 미래 인재로 육성하려면,
취업·창업 기회와 안정적인 체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유치한 인재가
오래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명확한 영주 경로와 가족의 생활 기반은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해외 정책에서는 안정적인 체류와 함께,
가족 동반과 배우자의 취업 기회를 정주의 중요한 조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주 자격	가족 동반	배우자 취업
정책의 의미 안정적인 체류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기본 경로	**정책의 의미** 배우자·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착 기반	**정책의 의미**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정주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
해외 정책 흐름 핀란드: 연속거주기간, 언어, 취업경력을 주요 요건으로 영주 경로 운영	**해외 정책 흐름** 성인 자녀 동반과 부모 초청 확대 검토	**해외 정책 흐름** 독일: 숙련 이주민 배우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 프랑스: Talent Passport 배우자와 18세 이상 자녀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

정주를 위한 공통 조건

안정적인 체류 + 가족 동반 + 배우자 취업 → 장기 정주

사람이 오래 머물려면 체류자격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사회통합은
왜 지역에서 완성될까?

- 이주민의 정착과 통합은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원칙과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계획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이주민이 정책의 실행과 평가에 참여합니다.



중앙정부
통합정책의 기본 원칙·표준·재원 마련



지방정부
지역 통합계획 수립, 서비스 설계·운영



지역사회
주민·기업·기관이 협력해 지역 프로그램 실행



이주민
계획 수립과 평가에 참여해 실제 수요와 의견 반영



해외 사례 | 뉴질랜드 'Welcoming Communities'

표준 원칙 제시

- 지방정부의 지역별 환영 계획 수립
- 추진 단계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이주민을 환영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설계·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의 공통 구조



**사회통합은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원, 지방정부의 실행,
지역사회와 이주민의 참여가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인재의 유입에서 정주와 다음 세대의 성장까지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인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는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체류와 가족생활, 사회통합과 교육서비스를 함께 설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요 정책 과제

장기 인구 전략



이주민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

인재의 정주화



전문·고숙련 인재와 유학생을 취업·체류·영주로 연결

쌍방향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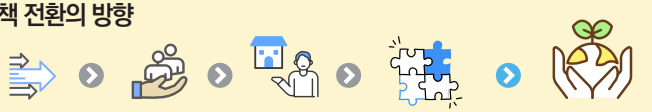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선주민의 인식과 사회제도도 함께 변화

생애주기별 지원



입국 전 교육부터 성인 언어교육, 영유아 보육·교육, 이주배경 아동 지원까지 연계

정책 전환의 방향



**이민정책은 인력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인구 전략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발간물 ➔ 총서/단행본



No.2025-12

이민정책 연구총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 동향 검토

장주영 | 김도원 | 민수진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1.php

최신연구자료 열람 | 정책자료 확인 | 통계자료 이용 | 연구성과 검색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기획관리팀(02-3788-8020, 8012)